

목 차

간행사

이 책에 대하여

일러두기

1. 근심에 빠져 지은 글 [이소경離騷經] - 굴원屈原 / 17
2. 어부漁父의 노래 [어부사漁父辭] - 굴원屈原 / 39
3. 객경客卿의 축출을 말리고자 진시황秦始皇에게 올린 글 [상진황축
객서上秦皇逐客書] - 이사李斯 / 41
4. 가을바람의 노래 [추풍사秋風辭] - 한 무제漢武帝 / 45
5. 굴원屈原을 조문한 부賦 [조굴원부弔屈原賦] - 가의賈誼 / 46
6. 성군聖君이 현신賢臣을 얻은 것에 대한 칭송 [성주득현신송聖主得賢
臣頌] - 왕포王褒 / 49
7. 자신의 뜻을 즐기는 것에 대한 논술 [낙지론樂志論] - 중장통仲長統
/ 55
8. 출병出兵하면서 올린 표문 [출사표出師表] - 제갈량諸葛亮 / 57
9. 출병出兵하면서 올린 두 번째 표문 [후출사표後出師表] - 제갈량諸葛
亮 / 61
10. 술의 공덕功德에 대한 칭송 [주덕송酒德頌] - 유령劉伶 / 65

12 고문진보 산문선

11. 난정시첩 蘭亭詩帖의 서문 [난정첩서蘭亭帖序] - 왕희지王羲之 / 67
12. 마음을 아뢴 표문 [진정표陳情表] - 이밀李密 / 70
13.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귀거래사歸去來辭] - 도연명陶淵明 / 73
14. 오류선생五柳先生의 전기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 도연명陶淵明 / 77
15. 북산北山 산신山神的 공문公文 [북산이문北山移文] - 공치규孔稚圭 / 79
16. 등왕각滕王閣 잔치에서 지은 서문 [등왕각서滕王閣序] - 왕발王勃 / 84
17. 봄밤에 도리원桃李園에서 잔치하며 지은 시첩詩帖 서문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 이백李白 / 90
18. 한형주韓荊州에게 보낸 편지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 - 이백李白 / 92
19. 군주가 지켜야 할 잠언 [대보잠大寶箴] - 장은고張蘊古 / 95
20. 사람의 근본을 밝힘 [원인原人] - 한유韓愈 / 100
21. 도道の 근본을 밝힘 [원도原道] - 한유韓愈 / 101
22. 남해신南海神을 모신 묘당廟堂의 비문 [남해신묘비南海神廟碑] - 한유韓愈 / 109
23. 간쟁諫爭하는 신하에 대한 논술 [쟁신론爭臣論] - 한유韓愈 / 115
24. 가난귀신을 보내는 글 [송궁문送窮文] - 한유韓愈 / 121
25. 학생들을 나오게 하여 해명한 글 [진학해進學解] - 한유韓愈 / 125
26. 악어에게 보낸 글 [악어문鰐魚文] - 한유韓愈 / 131
27. 유주柳州의 나지묘羅池廟 비문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 - 한유韓愈 / 133
28. 맹동야孟東野를 전송하는 서문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 - 한유韓愈 / 137

29. 반곡盤谷으로 돌아가는 이원李愿을 전송하는 서문 [송이원귀반곡서
送李愿歸盤谷序] - 한유韓愈 / 140
30. 스승에 대한 논설 [사설師說] - 한유韓愈 / 145
31. 각종 논설 [잡설雜說] - 한유韓愈 / 147
32. 백이伯夷에 대한 칭송 [백이송伯夷頌] - 한유韓愈 / 149
33. 《창려문집》의 서문 [창려문집서昌黎文集序] - 이한李漢 / 151
34. 어느 도목수都木수에 대한 전기 [재인전梓人傳] - 유종원柳宗元 / 153
35. 뱀 잡는 사람에 대한 논설 [포사자설捕蛇者說] - 유종원柳宗元 / 159
36. 원예사園藝師 곽탁타郭橐駝의 전기 [종수곽탁타전種樹郭橐駝傳] - 유종원
柳宗元 / 162
37. 〈우계시愚溪詩〉의 서문 [우계시서愚溪詩序] - 유종원柳宗元 / 165
38. 오동잎으로 아우를 봉해준 것에 대한 논변 [동엽봉제변桐葉封弟辯]
- 유종원柳宗元 / 168
39. 연주군에서 석종유石鍾乳가 다시 나온 것에 대한 기문 [연주군복
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 - 유종원柳宗元 / 170
40. 대나무를 가꾸는 것에 대한 기문 [양죽기養竹記] - 백거이白居易 / 172
41. 아방궁阿房宮에 대한 부賦 [아방궁부阿房宮賦] - 두목杜牧 / 175
42. 옛 전쟁터에서 죽은 혼령을 위로한 글 [조고전장문弔古戰場文] - 이
화李華 / 178
43. 대루원待漏院에 대한 기문 [대루원기待漏院記] - 왕우칭王禹偁 / 183
44. 황주黃州的 죽루竹樓에 대한 기문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 - 왕우칭王
禹偁 / 186
45. 악양루岳陽樓에 대한 기문 [악양루기岳陽樓記] - 범중엄范仲淹 / 188

14 고문진보 산문선

46. 흘笏로 뱀을 쳐 죽인 데 대한 명문銘文 [격사흘명擊蛇笏銘] - 석개石介 / 191
47. 독락원獨樂園에 대한 기문 [독락원기獨樂園記] - 사마광司馬光 / 196
48. 맹상군孟嘗君의 전기를 읽고 [독맹상군전讀孟嘗君傳] - 왕안석王安石 / 197
49. 취옹정醉翁亭에 대한 기문 [취옹정기醉翁亭記] - 구양수歐陽脩 / 198
50. 가을 소리에 대한 부賦 [추성부秋聲賦] - 구양수歐陽脩 / 201
51. 쉬파리를 미워하는 부賦 [증창승부憎蒼蠅賦] - 구양수歐陽脩 / 204
52.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부賦 [명선부鳴蟬賦] - 구양수歐陽脩 / 207
53. 남쪽으로 돌아가는 서무당徐無黨을 전송하는 서문 [송서무당남귀서送徐無黨南歸序] - 구양수歐陽脩 / 210
54. 죄수를 풀어준 일에 대한 논술 [종수론縱囚論] - 구양수歐陽脩 / 212
55. 붕당朋黨에 대한 논술 [붕당론朋黨論] - 구양수歐陽脩 / 215
56. 관중管仲에 대한 논술 [관중론管仲論] - 소순蘇洵 / 219
57. 산 모양으로 생긴 나뭇등걸에 대한 기문 [목가산기木假山記] - 소순蘇洵 / 223
58. 한나라 고조高祖에 대한 논술 [고조론高祖論] - 소순蘇洵 / 225
59.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한 논설 [명이자설名二子說] - 소순蘇洵 / 229
60. 적벽赤壁에 대한 부賦 전편前篇 [전적벽부前赤壁賦] - 소식蘇軾 / 230
61. 적벽赤壁에 대한 부賦 후편後篇 [후적벽부後赤壁賦] - 소식蘇軾 / 234
62. 구양공歐陽公에게 올리는 제문 [제구양공문祭歐陽公文] - 소식蘇軾 / 236
63. 능허대凌虛臺에 대한 기문 [능허대기凌虛臺記] - 소식蘇軾 / 239
64. 농사짓는 방법에 대한 논설 [가설稼說] - 소식蘇軾 / 241

65. 범증范增에 대한 논술 [범증론范增論] - 소식蘇軾 / 243
66. 원주袁州 향학鄉學에 대한 기문 [원주학기袁州學記] - 이구李觀 / 246
67. 약藥에 대한 경계 [약계藥戒] - 장뢰張耒 / 249
68. 사정思亭에 대한 기문 [사정기思亭記] - 진사도陳師道 / 254
69. 자장子長의 유람에 대한 글을 합방식蓋邦式에게 줌 [자장유 증합방식子長遊 贈蓋邦式] - 마존馬存 / 257
70. 집에 소장한 옛 벼루에 대한 명문 [가장고연명家藏古硯銘] - 당경唐庚 / 261
71. 석시랑席侍郎께 올리는 글 [상석시랑서上席侍郎書] - 당경唐庚 / 262
72.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 뒤에 쓴 글 [서낙양명원기후書洛陽名園記後] - 이격비李格非 / 266
73. 연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논설 [에련설愛蓮說] - 주돈이周敦頤 / 267
74. 태극도太極圖에 대한 논설 [태극도설太極圖說] - 주돈이周敦頤 / 268
75.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잠언 [사물잡四勿箴] - 정이程頤 / 270
76. 서실 서쪽에 붙인 명문 [서명西銘] - 장재張載 / 273
77. 서실 동쪽에 붙인 명문 [동명東銘] - 장재張載 / 275
78. 극기복례克己復禮에 대한 명문 [극기명克己銘] - 여대림呂大臨 / 276

1. 근심에 빠져 지은 글 [이소경離騷經]

굴원屈原

이소離騷란 '근심에 빠졌다.'라는 뜻이다. 굴원이 초楚나라 회왕
 懷王에게 직언을 하다가 다른 대부大夫의 참소를 받아 회왕과 소원
 해지자, 이를 근심하며 이 글을 지었다.

굴원은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원原, 이름은 평평이
 다. 작품은 한부漢賦에 영향을 주었고 고대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시
 인으로 평가된다. 초사楚辭의 창시자이다.

고양高陽 임금 전주顛頊의 먼 후손이신,	帝高陽之苗裔兮
나의 훌륭한 선친先親은 자字가 백용伯庸이시네,	朕皇考曰伯庸
북두성 자루가 바로 첫 모퉁이를 도는 해	
인년寅年 정월正月,	攝提貞于孟陬兮
경인일庚寅日에 나는 태어났다네.	惟庚寅吾以降

아버님은 내 생년월일 따져보시고,	皇覽揆余于初度兮
비로소 내게 아름다운 이름 지어주셨네.	肇錫予以嘉名
내 이름은 정칙正則이라 하시고,	名余曰正則兮
내 자字는 영균靈均이라 하셨네.	字余曰靈均

나는 이미 내면에 아름다움을 가득 지니고,	紛吾既有此內美兮
-------------------------	----------

또 뛰어난 재능까지 더했다네.	又重之以修能
향초香草인 강리江離와 벽지辟芷를 몸에 두르고,	扈江離與辟芷兮
가을 난초 屈어 허리 노리개로 삼았네.	紉秋蘭以爲佩

나는 몸 닦기에 장차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며,	汨余若將不及兮
세월이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네.	恐年歲之不吾與
아침엔 비산毗山의 향초 목란木蘭을 따오고,	朝搴毗之木蘭兮
저녁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물가의 숙망宿莽을 따왔도다.	夕搴洲之宿莽

세월이 훌연히 지나가며 멈추지 않음이어!	日月忽其不淹兮
봄과 가을이 그 계절을 바꾸네.	春與秋其代序
초목草木의 잎이 시들어 떨어짐을 생각하여,	惟草木之零落兮
임금님의 늙어가심을 두려워하네.	恐美人之遲暮

장성함에 미쳐 더러움을 버리지 않고,	不撫壯而棄穢兮
어찌 이 버릇 고치지 않는가?	何不改乎此度
준마駿馬를 타고 달려서,	乘騏驎以馳騁兮
오시면 내가 앞장서 길을 인도하리라.	來吾道夫先路

옛 삼왕三王*의 순수純粹한 덕이어!	昔三后之純粹兮
실로 못 어진 신하들이 같이 있었도다.	固衆芳之所在
향목香木인 신초申椒와 균계菌桂 섞어 차셨으니,	雜申椒與菌桂兮

어찌 혜초蕙草와 채초蒞草만 차셨겠나? 豈維初夫蕙蒞

* 삼왕三王은 하夏나라 우왕禹王, 은殷나라 탕왕湯王, 주周나라 문왕文王 · 무왕武王을 이른다.

저 요순堯舜 임금의 광명정대하심이어! 彼堯舜之耿介兮

이미 도道를 좇아서 정로正路를 얻었는데, 既遵道而得路

어찌 폭군 걸주桀紂의 창피한 행적은, 何桀紂之昌披兮

오로지 사도邪道로 빠져서 멋대로 달려갔는가? 夫唯捷徑以窘步

소인小人 무리들과 구차히 즐길만 탐하니, 惟黨人之偷樂兮

길이 어둑하고 험난하도다. 路幽昧以險隘

어찌 내 몸의 재앙을 꺼리겠는가! 豈余身之憚殃兮

임금의 행하는 일이

선왕의 공적 무너뜨릴까 두려운데, 恐皇輿之敗績

분주히 앞뒤로 달려, 忽奔走以先後兮

성왕聖王之 발자취에 미치려 하였는데, 及前王之踵武

임금님은 내 마음 살피지 않으시고, 荃不揆余之中情兮

도리어 참소를 믿어 진노하시네. 反信讒而齎怒

내 실로 직간直諫이 화禍가 될 줄 알지만, 余固知謇謇之爲患兮

차마 그만둘 수 없도다. 忍而不能舍也

천지신명天地神明을 가리키며 바로잡고자 하였으니, 指九天以爲正兮

오로지 임금님의 사의思義가 심중深重해서라네. 夫唯靈脩之故也

황혼黃昏에 만나자 기약했건만, 日黃昏以爲期兮
아! 중도에 길을 바꾸셨네. 光中道而改路

처음에 이미 나와 언약했건만, 初既與余成言兮
뒤에 뜻을 바꿔 판마음 품으셨네. 後悔遁而有他
내 이미 이별하기 어렵지 않지만, 余既不難夫離別兮
임금님이 자주 변함에 가슴 아프네. 傷靈脩之數化

내 이미 난초를 조그만 밭이랑에 모종하였고, 余既滋蘭之九畹兮
또 혜초를 백 이랑에 심었네. 又樹蕙之百畝
유이留夷와 게거揭車 발두독에 심었고, 畦留夷與揭車兮
두형杜衡과 방지芳芷*도 섞어 심었네. 雜杜衡與芳芷

* 유이留夷, 게거揭車, 두형杜衡, 방지芳芷는 모두 향초香草 이름으로, 인의仁義와 충효忠孝를 비유한다.

가지와 잎사귀의 무성함을 바라고, 冀枝葉之峻茂兮
때가 되면 내 장차 베어들이기 원했네. 願俟時乎吾將刈
비록 시든다 해도 어찌 가슴 아프겠는가미는, 雖萎絕其亦何傷兮
못 향기로운 것들이 잡초로 거칠어짐이 슬프도다. 哀衆芳之蕪穢

못 모든 소인小人들이 다투어 욕심을 내고, 衆皆競進以貪婪兮